



3월에

-시작의 달, 이별의 달



윤여임
조란목장 운영

겨 우내 들락거리는 아이들 덕에 생활의 흐름도 빨라지고 활력이 가득 차,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다시 예전처럼 느릿하게 돌아왔다. 우리 집의 3월은 이렇게 텅 빈 것으로 출발한다. 애들이 와서 지내다 가면 늘 있는 일이지만 언제나 낯설고 섭섭하기만 하다. 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하나씩 집을 떠나갔지만 큰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

나던 때를 생각하면 두고두고 가슴이 저러온다.

이 험한 세상에 딸애를 낳은 곳에 혼자 살게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결정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내게 친정어머니는 아이들 다 품에 끌어안고 바보 만들 거냐고 나무라셨다. 당신은 사남매 다 객지로 보내 공부 시키면서 전화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 그저 편지나 한 번씩 주고받으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사셨다면 서둘러 아는 분을 통해서 믿을 만한 자취집을 소개해 주셨다. 2월 28일 책상이며 작은 옷장과 아이 짐을 챙겨 이사를 시켰다.

짐을 정리하고 딸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어스름해지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내가 학교를 다녔던 그곳은 너무 많이 변해 버려 어딘지 종잡을 수도 없었다. 마음으로는 그림고 다정한 곳이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낮은 내리는 비 탓인지 훨씬 강하게 무게를 더해 우리 모녀를 초라한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낯선 곳에 저 아이를 혼자 두고 가야 하는 서러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연신 헛기침을 했다. 낯선 형광등불빛 아래 우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 잠자리에 누웠다. 사방은 밤새 켜 놓은 가로등 빛으로 왜 그렇게 환한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다 지은 지 오래 된 집이라 외풍 때문에 코가 시렸다.



에는 불안함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다 이런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쩔 수 없어. 이제 너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해결해야 돼.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해.”

밥을 할 줄이나 반찬을 할 줄이나,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한숨이 나왔다. 양념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상을 차려 먹으라고 해 주고 돌아서는데 아이가 젖은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집에 갔다가 입학식 날 오면 안 될까?” 눈물이 툼벙툼벙 치킨 위로 상위로 떨어졌다. 가까스로 서운함을 참고 있던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고 우린 부둥켜안고 울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그래, 그러자.”

금방 생기를 찾고 눈물을 훔쳐 내며 계면쩍게 웃는 아이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 혼하고 좋았던지……. 남편은 만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 온 우리 모녀를 혀를 차며 맞이했다.

“쫄쫄, 잘하는 것이다. 그 에미에 그 딸이군.”

이미 지나 버린 일이지만 사업이 어려워 외국에 나가 있던 오빠네 가족 생각에 매일 눈물바람을 하 시던 엄마에게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 그만하면 잘 사는 거지 뭐 때문에 눈물을 보이시냐고 모진소리를 했다. 내 나름대로 엄마가 마음 약해지실까 봐 그랬지만, 하루면 두 번이라도 오갈 수 있는 가까

현장 ESSAY

운 곳으로 아이들을 내보내고도 이렇게 마음 둘 데 없이 가슴에 찬바람이 이는데, 이역만리 자식을 보낸 늙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역장이 탁탁 막혔다. 아이들을 다 내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모자라지만 부모님의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녀석은 어릴 적부터 짐을 싸서 나다니는 일을 아주 잘 했다.

보이스카우트, 우주 정보 소년단 활동을 하면서 짐도 혼자 잘 싸고 낯선 곳에 적응도 잘했다. 고등학교를 기숙학교에 보내면서도 우린 아무도 막내 걱정

은 하지 않았다. 이불 짐을 들어다 주겠다고 했더니 창피하니까 혼자 가겠다고 했다. 덩그러니 커다란 교복을 입고 오리엔테이션 때 사귀어 아이들과 이불 짐을 들고 멀어지는 아이를 따라가 마다하는 것을 앞세워 기숙사에 들어갔다. 별도 안 드는 곳, 커튼은 낡고 얇은 것이 편이 한쪽은 빠져서 너풀거리고 웅색한 이층 침대가 두 개. 바닥은 너무 차서 양말 신은 발이 저렸다. 어찌나 썰렁하고 을씨년스런지 선뜻 발길이 돌아서지지 않았다. 자꾸만 어서 가라고 돌려 세우는 녀석이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차안에서 울기만 했다.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 둘 다 부모 곁을 떠나 자신들의 틀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애들 방안에서 끼쳐질 냉기가 싫어서 봄이 다 지나도록 보일러 벨브도 잠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냈다. 한 달에 두 번 집에 오는 아들 녀석은 단 일 이십분이라도 빨리 오려고 예매해 둔 기차표를 무르고 긴 시간을 입석을 타고 집에 왔고, 학교로 돌아갈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고 싶어서 언제나 차시간이 없어 애를 쓰곤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오던 날엔 왜 그렇게 더 허전한지 자꾸만 마음에서 찬바람이 돌았다.

며칠 전 헬썩해 진 얼굴로 집에 온 녀석이 내게 말했다.

봄철이면 한바탕씩 몸살을 앓는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니까 전화도 못했단다. 주말이면 학교 앞에 즐비하게 차를 대는 엄마들이 극성스러워 보이면서도 부러웠노라고. 그런 엄마들 보다가 우리



엄마 보면 가끔씩 고아처럼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는 잘 모른다. 무엇이든 혼자 결정해야 하고 무엇이든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기숙사 생활이 몸이 아플 때는 얼마나 힘겹고 눈물 나는지.

내색은 안했지만 그 놀라움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다.

“야, 니네 친구 부모들 자동차 안 내준다며? 그런데 너는 필요하다면 아빠가 언제든지 차 열쇠 내주고 하는 것이 다 어른대접 해주고 강하게 크라는 뜻이지, 그렇다고 무슨 고아냐?” 하고 맞받아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도 누나들이나 저처럼 자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몸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고 그런 날은 좀 데리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뭐든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우리가 대견하시겠지만 주변의 엄마들이 모두 다 너무 챙기니까 가끔씩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구요.”

신입생활영화다 뭐다 해서 연일 불러 다니면서 안마시던 술도 마셔야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느라, 이래저래 고단해 한바탕 앓고 왔다는 녀석 얼굴은 반쪽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이틀 자고 또 훌쩍 떠나버렸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성큼성큼 멀어지는 아이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 된다. ‘야, 이 녀석아 학교에 다녀오는 게 아니라 네가 잠시 집에 다녀가는 거지. 임마, 그것도 모르냐.’

우리는 매일 이별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이별이 3월이면 더욱 새로운 것은 3월에 부가되는 시작의 의미 때문일 것이다.

이별이야말로 진정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아닐까?

3월은 시작의 달이요, 이별의 달이다.

별에 길게 누워 해바라기 하는 소들에게도 3월은 그동안 추위에 웅크렸던 등을 쭉 펴고 춤지도 덤지도 않은 봄을 맞는 달이고, 목장주는 거름도 내야하고 묵혀 두었던 밭도 갈고 본격적인 농사일로 한층 더 바빠지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겨우내 째째이 만나서 놀던 이웃들과의 만남도 슬그머니 접고 추위 때문에 미뤄놓은 크고 작은 일거리들을 꺼내어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절이 돌아 온 것이다.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목장
일이지만 목장은 지금부터 진
짜 체질, 일철이다. ㉮